

대학생의 성취동기와 우울의 관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박동진¹, 김송미^{2*}

¹한영대학교 사회복지과 조교수, ²도시사대학 사회복지학과 박사

The Effect of Achievement Motivation on Dep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Dong-Jin Park¹, Song-Mi Kim^{2*}

¹Assistant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Hanyeong University

²Ph.D., Dept. of Social Welfare, Doshisha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취동기와 우울의 관계, 그리고 이들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Y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267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SPSS 22.0과 SPSS PROCESS macro 3.3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대학생의 성취동기는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성취동기는 우울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의 성취동기와 우울의 관계에서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취동기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대학생의 성취동기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를 자아존중감이 완전매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의 함의 및 제한점을 논의하였고, 대학생에 대한 지원방안과 후속연구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제어 : 대학생, 성취동기, 우울,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achievement motivations of university students on depressio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se relationships. For this, data were collected from 267 university students enrolled in universities in Y city, and analyzed using SPSS 22.0 and SPSS PROCESS macro 3.3.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t was found that the achievement motivation of university student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elf-esteem, a parameter.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achievement motivation of university students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depression.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hievement motivation and depression in university students, self-esteem, a parameter,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depression, whereas achievement motivat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depression. In view of this, it was confirmed that self-esteem was completely mediated in the effect of achievement motivation of university students on depres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nd support plans and follow-up studies for university students were suggested.

Key Words : University Student, Achievement Motivation, Depression, Self-esteem, Medi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Song-Mi Kim(matumism0730@gmail.com)

Received April 22, 2021

Accepted July 20, 2021

Revised June 4, 2021

Published July 28, 2021

1. 서론

한국 사회에서 경제 불황과 함께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자신에게 유의미한 경험을 찾아 스스로 학습하고 몰입하는 과정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거나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 특히 대학생들이 학업에 대해 본인이 해야 하는 직무 또는 책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본질적인 의미에서 학업에 몰입하지 못하고 학업스트레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며[2,3], 이는 대학 학생상담센터를 찾는 대학생들의 주 호소문제가기도 하다[4,5].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들 중 우울은 가장 유병률이 높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6], 대학생 시기에 우울은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거나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7]. 특히 우울은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삶의 만족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8].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과도기이고, 이 시기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나가는 등과 같은 다양한 발달과업을 수행한다[9]. 발달단계에 있어 후기 청소년기 혹은 초기 성인기의 전환기에 있는 대학생은 청소년기와 같이 불안정적인 심리상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10].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청소년기에 확립한 자아정체감을 바탕으로 사회적 친밀감을 만들어나가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선택과 갈등을 겪게 된다[11]. 한편,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무리한 입시경쟁으로 인하여 자아정체감을 확립하지 못한 채, 성숙하지 못한 자아의 상태로 대학에 들어가고 성숙한 인격체의 책임과 역할을 성인으로서 강요받는 경우가 많다[12,13].

대학생의 우울을 예측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본 연구는 성취동기에 초점을 두었다. 성취동기는 성취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내적인 성향을 말하며, 설사 어려운 과업을 수행하게 되더라도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기의 능력을 최대로 활용하여 역경을 극복하고,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동기를 뜻한다[14]. 성취동기는 인간의 행동변화 또는 개인의 발전과 성취에 있어 많은 부분을 설명해주는 변인으로 의도적인 과정에 의해 훈련되고 육성될 수 있다고 설명되며[15], 자아존중감뿐 아니라 자아탄력성, 주관적 안녕감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16]. 성취동기이론[17]에 따르면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은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신감

이 높으며, 일반적으로 자신이 수행하는 과제의 성취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성취를 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을 하고 몰입하며, 설사 자신이 행동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이를 인지했을 때에 느끼게 되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실패에 대해서도 강한 인내심을 갖는 등의 특징이 있다. 대학생의 성취동기는 학업몰입[1,18], 학업성취[19,20], 진로결정 및 취업준비행동[21]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성취동기와 우울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우나, Beck[22]에 따르면 미래에 대해 가지는 부정적인 인식과 해석이 우울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성취목표를 향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성취동기가 개인의 긍정적인 정서를 높인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하면, 우울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낮추는 것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성주희와 홍혜영[16]은 성취동기와 주관적 안녕감이 서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힌 바 있고, 성취동기가 긍정적인 정서를 증진시키고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자기 스스로의 기준에 도달하려는 사람은 성취동기가 높고, 하려는 의욕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감소된다[23]. 이를 볼 때,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개인의 안녕감이나 긍정적인 정서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24-26]은 성취동기가 우울을 낮추는 데 유효하다는 것을 추론해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성취동기는 자아존중감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자기에 대해 존경하는 정도를 비롯하여 자신에 대해 가치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말한다[27]. 홍성훈[28]과 정은정[29]은 성취동기와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밝힌 바 있고, 이자형과 황성훈[30]은 대학생의 성취동기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우울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Rosenberg[31]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에 그 사람은 안정적이고, 행복하며, 애정이 있었고, 삶의 활력이 많고 순발력 등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반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불행함을 느끼고, 분노를 자주 느꼈으며, 쉽게 짜증을 냈고, 갈등을 빈번히 경험한다. 한편 김경호[32]는 청소년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자아존중감이 점차 낮아지고,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우울수준이 더 높아지는 결과를 밝힌 바 있다. 조춘범과 김동기[33]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우울이 감소됨을 밝힌 바 있고, 그

의 선행연구들[34-36]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우울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 이전의 자아존중감은 그 이후의 우울을 부적으로 예측하였으며, 이는 자기 회귀적 관계를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갖고 있어서 자아존중감에 문제가 있는 경우, 우울에 지속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eck[22]이 제시한 인지이론을 살펴보면 자기와 세상 그리고 미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관점으로 우울이 발생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인지적으로 취약하게 하는 요인들 중 하나로 낮은 자아존중감이 자주 언급되었다[37]. 즉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높은 자아존중감은 우울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요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37-39]. 이 연구들을 통하여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에 비해 더 높은 희망을 설정하고, 이 희망을 달성하는데 있어 실패하는 경우에도 자신에 대해 비하하지 않고 실패를 잘 인내하며, 삶에서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유지하여 좌절을 적게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37,40]. 이는 Macinners[41], Orth et al.[42]에서도 확인되었다.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 비해 우울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42],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보내지만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부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여 우울을 비롯한 정신건강적인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41].

이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대학생의 성취동기는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우울에 대해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자아존중감이 성취동기가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고려할 때, 성취동기와 우울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대학생의 우울 등 정신건강적인 측면에서 지원할 대응책을 모색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취동기, 우울,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며, 특히 성취동기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이를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즉 대학생의 성취동기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이들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에 대한 정신건강 차원에서 심리·정서적 적응을 돕

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가설과 연구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성취동기는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대학생의 성취동기와 우울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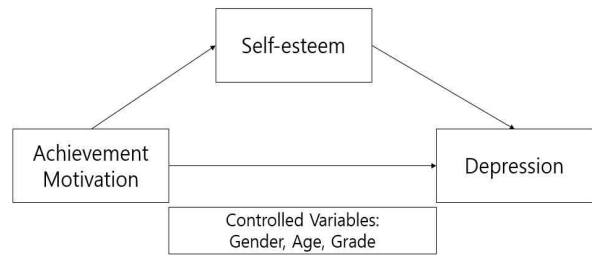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Y시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여 2021년 1월 27일부터 2021년 2월 21일까지 약 1개월 간 자료를 수집하였다. 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윤리에 대한 사항들을 설명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를 전달하고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N	%
Gender	Male	152	56.9
	Female	115	43.1
Age	20	5	1.9
	21	34	12.7
	22	30	11.2
	23	49	18.4
	24	41	15.4
	25	39	14.6
	26	22	8.2
	27	19	7.1
	28	23	8.6
	29	5	1.9
	M(SD)	24.10(2.24)	-
Grade	1	176	65.9
	2	57	21.3
	3	33	12.4
	4	1	0.4

연구에 참여의사가 있는 대상자들이 각자 참여하여 설문
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본은 G*Power 3.1.9.7을 이용
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5, 검정력 .95, 변수 27개
로 분석할 경우에 필요한 최소 대상자가 75명인 것을 확
인하였다. 최종적으로 설문에 응답한 학생 수는 267명이
었으므로 본 연구에 필요한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성별, 연
령, 학년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2.2 측정도구

2.2.1 성취동기

성취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양계민 외[43]가 사용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나는 내가 세운 학습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최선
을 다한다”, “나는 나 스스로 학습목표를 결정한다”, “나
는 스스로 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좋아한다”,
“내가 관심이 있는 일을 시도하는 것을 즐긴다”, “나는 내
가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노력한다”, “나는 가족이나 주
위 사람의 기대보다는 내가 원하는대로 추진한다”이다.
이는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
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
록 구성되어있으며,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성취동기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91로 나타나 대체로 높은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

2.2.2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경상 외[44]가 사용한 문항
을 사용하였으며,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구체
적으로는 “나는 기운이 별로 없다”, “나는 불행하다고 생
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나는 걱정이 많다”, “나
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나는 울기를 잘한다”, “나는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
다”, “나는 외롭다”, “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
다”, “나는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나는 모든
일이 힘들다”이다. 이는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
렇다)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있으며, 척도의 점수가 높을
수록 우울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90으로 나타나 대체로 높은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2.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27]가 사
용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
다. 구체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
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품성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부
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할 수 있다”,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
다”, “나는 때때로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생각한다”이
며, 이 중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나는 때때로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생각한다”는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이
는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있으며,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90으로 나타나 대체로 높은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2.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인 인구사회학적인 특성 변
인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성별(남성=1, 여성=0),
연령(20-29), 학년(1학년=1, 2학년=2, 3학년=3, 4학년
=4)을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대학생의 성별과 연령은 노
명선 외[45]에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
성요인으로 나타난 것을 근거로 삼았으며, 대학생의 학년
은 유수정 외[46]에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
적 특성요인으로 나타난 것을 근거로 삼았다.

2.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에 대
해 SPSS 22.0과 SPSS PROCESS macro 3.3을 활용하
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였던 Baron과 Kenny[47]의
분석방법과 Sobel[48]의 Sobel test가 1종 오류를 증가
시키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타당도 측면에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다[49]. Hayes[50]가 개발한
SPSS PROCESS macro에서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는
것은 정규성이 자유롭고 1종 오류의 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고, 직접효과, 매개효과 등을 한 번에 검증할 수 있으

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분석방법이 성취동기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자료분석방법은 먼저 SPSS 22.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주요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하였다. 그 다음으로 다중공선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SPSS PROCESS macro 3.3을 활용하여 성취동기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 이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검증하였다.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고, 편향수정백분율법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여 살펴보았다[51]. 신뢰구간은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해석하였다[52]. 또한 경로분석에서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총효과를 살펴보았다.

3. 연구결과

3.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 연구대상자들의 성취동기는 최소 8.00에서 최대 40.00의 범위 안에서 평균 31.45(SD=.622)로 나타났으며, 우울은 최소 10.00에서 최대 50.00의 범위 안에서 평균 19.28(SD=7.53)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은 최소 18.00에서 최대 44.00의 범위 안에서 평균 29.93(SD=6.21)으로 나타났다. 변수의 정규성을 살펴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왜도가 -1.16~.93 사이에 있어 ±2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고, 첨도가 -.95~1.93 사이에 있어 ±7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Variables	N	M	SD	Skewness	Kurtosis
Achievement Motivation	267	31.63	6.09	-1.15(.14)	1.95(.29)
Depression	267	19.28	7.53	.89(.14)	1.04(.29)
Self-esteem	267	29.93	6.21	.30(.14)	-.92(.29)

3.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변수수준의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변수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취동기와 우울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년에 따른 변수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우울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취동기와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령에 따른 변수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취동기, 우울, 자아존중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Differences in variable levels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M(SD)	t/F
Achievement Motivation	Male	32.37(6.34)	2.30*
	Female	30.65(5.63)	
Depression	Male	17.39(6.48)	-4.75***
	Female	21.77(8.11)	
Self-esteem	Male	30.51(6.50)	1.77
	Female	29.16(5.75)	
Achievement Motivation	1Grade	32.14(5.77)	2.12
	2Grade	31.38(6.10)	
	3Grade	29.48(7.35)	
	4Grade	26.00(-)	
Depression	1Grade	18.18(6.35)	3.89*
	2Grade	21.07(9.09)	
	3Grade	22.03(9.31)	
	4Grade	19.00(-)	
Self-esteem	1Grade	30.13(6.19)	.35
	2Grade	29.91(6.61)	
	3Grade	28.90(5.78)	
	4Grade	30.00(-)	
Achievement Motivation	20	33.60(6.69)	12.60
	21	30.85(5.87)	
	22	30.86(6.35)	
	23	31.02(6.40)	
	24	32.07(3.33)	
	25	30.28(8.48)	
	26	34.50(4.07)	
	27	32.57(5.54)	
	28	31.86(6.33)	
29	35.20(3.42)		
Depression	20	19.40(8.50)	1.27
	21	18.61(6.70)	
	22	22.80(8.94)	
	23	19.93(7.36)	
	24	18.24(6.41)	

	25	18.00(8.00)	.84
	26	19.13(6.27)	
	27	17.78(7.31)	
	28	20.39(9.04)	
	29	15.80(4.96)	
Self-esteem	20	31.00(9.92)	
	21	29.05(5.82)	
	22	29.60(6.71)	
	23	30.06(5.94)	
	24	29.70(5.04)	
	25	28.94(6.61)	
	26	30.31(6.88)	
	27	32.10(7.21)	
28	30.00(6.07)		
29	35.00(3.31)		

* p<.05, ** p<.01, *** p<.001

3.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 분석

다중공선성은 독립변수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 는 문제이므로 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가설 검정을 하기 전에 다중공선성을 살펴보기 위해 주 요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분산팽창계수(VIF)도 살펴보았다. 성취동기, 우울,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성취동기와 우울($r=-.32, p<.001$), 성취동기와 자아존중감($r=.57, p<.001$), 자아존중감과 우울($r=-.45, p<.001$)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 관관계수가 $-.45\sim.57$ 로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독립변수 들 간의 상관관계수가 0.8을 초과하지 않으면 다중공선성 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51]. 또한 분산팽창계수 (VIF)가 1.49로 나타났으므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 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4. Analysis of correlation and multicollinearity

Variables	1	2	3	VIF
1. Achievement Motivation	1			1.49
2. Depression	-.32***	1		-
3. Self-esteem	.57***	-.45***	1	1.49

*** p<.001

3.4 성취동기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대학생의 성취동기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이용하여 매개모형 분석을 하였다. 매개효과

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 운데 또 다른 변수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매 개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47]. 즉 독립변수인 성취동기가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을 거쳐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모형 1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성별, 연령, 학년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성취동기가 매 개변수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이 모형이 갖는 설명력은 33.1%로 나타났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32.82, p<.001$). 분 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성취동기는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B=.58, p<.001$) 대학생이 성취동기를 높게 가질수록 자 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보여준다. 즉 성취동기는 대학생들 에게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는 성 별에서만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성취동기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총효 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 연령, 학년을 통제한 상태에 서 독립변수인 성취동기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 과 모형은 17.5%의 설명력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F=13.91, p<.001$).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성취동기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다 ($B=-.36, p<.001$). 즉 대학생의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우 울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변수에서는 성별 ($B=4.10, p<.001$)이 우울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에서는 독립변수인 성취동기와 매개변수인 자 아존중감을 투입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모형은 27.9%의 설명력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0.15, p<.001$).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B=-.47, p<.001$), 이에 반 해 독립변수인 성취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08, p>.001$). 즉 모형 2 를 통해서 확인되었던 성취동기의 우울에 대한 유의한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 라 성취동기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완전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형 2에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성별($B=-3.82, p<.001$)은 성취동 기가 추가되어도 여전히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유

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Hayes[50]는 부트스트래핑의 재추출수를 5,000번 이상으로 권유하는데, 이에 따라 표본을 5,000번 재추출하였다. 각 변수의 영향관계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보았다. 신뢰구간은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의 존재유무를 확인함으로써 유의성을 검증한다. 본 연구에서 성취동기가 우울에 미치는 총효과는 -.36로 나타났으며, 신뢰구간의 범위가 -.50~-.22로 '0'이 있지 않으므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성취동기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을 경유하는 간접효과는 -.25이며, 간접신뢰구간(Bias Corrected: BC)는 95% 신뢰구간에서 -.39~-.17 범위에 있으며, 하

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있지 않으므로 완전매개효과를 고려해볼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취동기와 우울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 살펴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성취동기는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성별, 연령, 학년을 통제한 상태에서 성취동기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취동기와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성취동기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자형과 황성훈[3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자형과 황성훈[30]에서는 성취동기가 자아존중감에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주변에서 발생한 일의 원인을 살필 때 자신의 내부적인 요인들을 찾아보고, 타인의 탓이나 운으로 넘기는 경우가 적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귀인성향에 의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성취동기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생의 성별, 연령, 학년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성취동기를 향상시키는 지원과 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대학생의 성취동기는 우울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개인의 안녕감이나 긍정적인 정서가 높아진다는 Carver와 Scheier[24], Stoeber & Rambow[25], 김태연[26]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자기 스스로의 기준에 도달하려는 사람은 성취동기가 높고, 하려는 의욕이 높아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감소된다는 이미화와 류진혜[23]의 연구결과도 지지한다. 이 결과를 통해 이들 변인들은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취동기는 주로 학업성취, 학습몰입 등 학습적인 측면[1,18,52]과 진로태도, 진로결정 등 진로 측면[54-56]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연구되어왔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성취동기가 우울 등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는 등 정신건강적인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Table 5.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hievement motivation and depression

Variables	Model 1(Self-esteem)	
	B(S.E)	t
(constant)	9.50(3.92)	2.41
Gender(M=1, F=0)	.56(.81)	.81
Age	.03(.15)	.24
Grade	.43(.50)	.85
Achievement Motivation	.58(.05)	11.22***
Self-esteem		
R-squared	.333	
F	32.82	
Variables	Model 2(Depression)	
	B(S.E)	t
(constant)	25.86(5.30)	4.88***
Gender(M=1, F=0)	-4.10(1.09)	-3.74***
Age	.28(.21)	1.33
Grade	.31(.67)	.46
Achievement Motivation	-.36(.07)	-5.17***
Self-esteem		
R-squared	.175	
F	13.91	
Variables	Model 3(Depression)	
	B(S.E)	t
(constant)	30.40(5.02)	6.05***
Gender(M=1, F=0)	-3.82(1.02)	-3.73***
Age	.30(.20)	1.51
Grade	.52(.63)	.82
Achievement Motivation	-.08(.08)	-1.05
Self-esteem	-.47(.07)	-6.11***
R-squared	.279	
F	20.15	

*** p<.001

수 있었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성취동기를 향상시키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대학생의 성취동기와 우울의 관계에서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취동기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대학생의 성취동기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이 완전매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대학생의 우울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성취동기가 자아존중감 향상으로 이어져야 우울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볼 때 대학생의 우울을 낮추기 위한 접근에 있어서 성취동기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지속적인 상담 등이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을 필수적으로 병행하여 제공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성취동기에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57],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자기성장 프로그램이나 집단상담 등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58-60]을 고려하면, 대학 학생상담센터 등 대학 내 학생지원기관에서 대학생들이 자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개인상담, 집단상담에 자연스럽게 참여하여 효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대학생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대학생 개인의 의지와 노력도 필요하지만, 대학 차원에서의 상담서비스를 보다 확대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생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재학생에 대한 상담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상담프로그램들은 대학생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1-63]. 그러므로 대학 내 학생상담센터 등을 통해 제공되는 학생상담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은 대학생의 심리정서적 적응을 지원하는 주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결과와 같이, 대학생의 성취동기를 향상시킴으로 그들이 주로 호소하는 우울 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상담프로그램이 확대되어 개발되고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학생 상담프로그램 효과와는 무관하게 대학생들이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지원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또는 편견을 갖고 있어 서비스 이용이 필요함에도 이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4]. 이때에 대학생이 지각하는 상담전문성에 대한 신뢰, 높은

상담만족도 등은 마음을 돌이켜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64], 대학 학생상담센터에서는 대학생의 상담이용 확대를 위해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대학 차원에서 대학생에 대한 실제적인 상담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65]에 따르면 전국 286개 대학 중 224개교(78%)가 연간 운영비 100백만원 이하로 운영하고 있고, 157개 대학(55%)은 연간 운영비가 50백만원 이하로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대학의 여건에 따라 서비스의 양과 질 모두에서 그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일제 상담인력 부족으로 상담의 체계성 및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일수록 학생상담지원이 열악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대학 차원의 대학생 정신건강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차원에서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취동기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성취동기와 우울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 대학생의 우울을 해결하기 위해 성취동기와 자아존중감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대학교에서는 대학생들에 대한 학습지원은 물론이고,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심리상담지원을 확대하여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이 안정적이고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재고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함의가 있음에도 본 연구는 표본의 대표성에 관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특정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라 그 외의 집단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다소 제약이 따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횡단적으로 살펴보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학생의 발달적인 특성을 고려하기에는 다소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시간을 두고 종단적으로 측정하여 살펴보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학생에게 있어 부모 요인은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물론이고,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 지지 등의 부모 요인이 심리정서적인 부분에서 대학생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대학생 관련 변인들을 살펴보는 데 있어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지지 등의 부모 요인에 대해

고려한다면, 대학생의 현실적인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Y. Y. Kim. & Y. K. Au. (2017). Relationship between Achievement Motivation and learning flow in University Students: Focusing on Gender and School Year Differenc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20), 333-358.
DOI : 10.22251/jlcci.2017.17.20.333
- [2] S. H. Park. & H. H. Kim.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and Adolescents' Academic Stress and Learned Helplessnes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5(3), 159-182.
- [3] G. S. Yoo. & D. W. Shin. (2013). Effects of Stress Coping Styles on Academic Burnout and Employment Stress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4(6), 3849-3869.
DOI : 10.15703/kjc.14.6.201312.3849
- [4] D. H. Lee. & S. W. Kang. (2006). Academic and Personal Stress Patterns of College Students: Developing Campus-wide Stress Management Intervention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Korea Journal of Counseling*, 7(4), 1071-1091.
- [5] M. J. Keum. & H. J. Nam. (2010). College Freshmen's Expectations about College Life and Their Mental Status,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31(1), 105-127.
- [6] S. H. Choi. & H. Y. Lee. (2014). Influence on College Students' Depression of Anxiety, Unemployment Stress, and Self-esteem -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0), 619-627.
DOI : 10.5392/JKCA.2014.14.10.619
- [7] J. S. Lee. & B. S. Jeong. (2014). Having mentors and campus social networks moderates the impact of worries and video gaming on depressive symptoms: a moderated mediation analysis, *BMC public health*, 14(426), 1-12.
DOI : 10.1186/1471-2458-14-426
- [8] M. S. Roh., H. J. Jeon., H. Kim., S. K. Ham. & B. J. Hahm. (2010). The prevalence and impact of depression among medical students: a nationwide cross-sectional study in South Korea, *Academic Medicine*, 85(8), 1384-1390.
DOI : 10.1097/ACM.0b013e3181df5e43
- [9] I. J. Lee. & H. K. Choi. (2007). 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Paju :Nanam.
- [10] M. K. Kim. (2011). Relationship on Family Abuse Experience, Depression, Resilience and Suicide Ideat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6(3), 109-127.
- [11] Erikson, E. H. (1968). *The life cycle: Epigenesis of identity*. in *Identity: Youth and crisis* (pp. 91-141). NY: W. W. Norton.
- [12] Y. R. Jeong. (2018). *Research Trend on Depression of Korean Medical students :Focused on Dissertations and Publications between 2000 and 2017*. Master's Thesis, Kyungsoong University, Busan.
- [13] H. I. Um. (2019). Trends in research on the depression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Leading on domestic academic papers Research trends on Korean university students' depression on leading domestic papers, . *Journal of Counseling Education Research*, 2(1), 137-152.
- [14] J. W. Kang. (2003). Impact of Private Factor and Parent Social Status on College Student Achievement Motivation,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11(2), 377-398.
- [15] D. E. Lee.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s' Verbal Control Mode and the Achievement Motivation of Children*,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16] J. H. Seong. & H. Y. Hong. (2012). The Medit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and Achievement motivation on the relation between Perfectionism and Subjective Well-being in University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3(1), 325-340.
DOI : 10.15703/kjc.13.1.201202.325
- [17] McClelland, D. C. (1985). *Human motivation*. Glenview, IL: Scott, Foresman.
- [18] H. W. Bang. & G. P. Cho. (2019). The Differences of Learning Flow, Academic Emotional Regulation, and Learning Strategies according to Achievement Motivation Level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0), 330-349.
DOI : 10.22251/jlcci.2019.19.10.331
- [19] S. Y. Tak., Y. S. Park. & U. C. Kim. (2007).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achievement of university students: With specific focus on parent-child relationship, self-efficacy, achievement motivation and hours studied, *The Korean Journal Child Education*, 16(1), 143-154.
- [20] M. O. Lee. & J. Y. Park. (2014). Effect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Identity on Academic Achievement in Health-Related Major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2(1), 17-23.
- [21] Y. H. Son. (2010). The Effect of Achievement Motivation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 Career Decision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29(1), 235-253.
DOI : 10.18284/jss.2010.06.29.1.235
- [22] Beck, A. T.(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Y: Harper and Row.
- [23] M. H. Lee. & J. H. Rhyu. (2002). The Positive and Negative Function of Perfectionism - in Relations

- with Achievement Goal, Stres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9(3), 293-316.
- [24] Carver, S. S. & Scheier, M. F.(2002). Optimism in Snyder, C. R. & Lopez, S. J. (Ed),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 [25] Stoeber, J. & Ramber, A.(2007). Perfectionism in adolescent school students: Relations with motivation, achievement, and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42, 1379-1389.
- [26] T. Y. Kim. (2011).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Achievement motiv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 gifted children*,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 [27]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28] S. H. Hong. (2002). *Mother-Adolescent Relationships and Adolescents' Self-esteem as related to Adolescents' Achievement Motivation*,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29] E. J. Jeong. (2004). *The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Achievement Motiv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of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Kangwon University, Chuncheon.
- [30] J. H. Yi. S. H. Hwang. (2012). The Mediating effects of Attribution between Achievement motivation and Self-esteem in Cyber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yber Education*, 6(2), 23-40.
- [31] Rosenberg, M. (1985).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In R. L. Leady(E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Orlando, Florida: Academic Press.
- [32] K. H. Kim. (2019). A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elf-esteem and Depression: Comparison of data from 3 KCYPS surveyed for different periods, *Journal of Youth Welfare*, 21(2), 69-96.
DOI : 10.19034/KAYW.2019.21.2.03
- [33] C. B. Cho. & D. K. Kim. (2010). Abstracts :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Adolescents Adapting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2(4), 207-229.
- [34] H. O. Sim. (1996). Research : Attributional style and mediators , self - esteem and social support influencing on university students' depressio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4(4), 63-74.
- [35] Brown, G. W., Andrews, B., Harris, T., Adler, Z. & Bridge, L. (1986). Social support in the face of adversity: The role of cognitive appraisal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3, 354-372.
- [36] Tennen, H., & Herzberger, S. (1987). Depression, self-esteem, and the absence of self-protective attributional bia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1), 72-80.
- [37] H. C. Choi. (2011).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Testing the Vulnerability Model, the Scar Model, and the Reciprocal Effects Model,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2(6), 2251-2271.
DOI : 10.15703/kjc.12.6.201112.2251
- [38] E. H. Lee., T. S. Choi. & M. J. Seo. (2000). Effects of Stress Related to School , Self - Esteem, Parent - Children Communication and Parents' Internal Support of Adolescent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2(2), 69-84.
- [39] M. R. Choi. & I. H. Lee. (2003). The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2), 363-383.
- [40] E. J. Jeong. & H. C. Choi. (2013). The Longitudinal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in Korean Childre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4(2), 1107-1124.
DOI : 10.15703/kjc.14.2.201304.1107
- [41] Macinnes, D. L.(2006). Self-esteem and self-acceptance: an examination into their relationship and their effect on psychological health.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3, 483-489.
- [42] Orth, U., Robins, R. W., & Meier, L. L. (2009). Disentangling the effects of low self-esteem and stressful events on depression: Findings from three longitudinal stud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2), 307-321.
DOI : 10.1037/a0015645
- [43] K. M. Yang., J. G. Hwang., B. R. Youn. & Y. M. Jeong. (2018). *Multicultural adolescents longitudinal study 2018*, Sejong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44] K. S. Lee., H. J. Baek., J. W. Lee. & J. Y. Kim. (2011). *The 2011 Annual Report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Seoul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45] M. S. Roh., H. J. Jeon., H. W. Lee., H. J. Lee., S. K. Koo. & B. J. Harm. (2006). Depressive Disorders among the College Students: Prevalence, Risk Factors, Suicidal Behaviors and Dysfunctions,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5(5), 432-437.
- [46] S. J. Yu., M. R. Song. & E. M. Kim. (2014). Factor Influencing Depress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 71-80.
DOI : 10.5977/jkasne.2014.20.1.71
- [47]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6), 1173-1182.
- [48]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 [49] H. E. Lee. (2014). Review of Methods for Testing Mediating

- Effects in Recent HRD Research, *Th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16(3), 225-249.
DOI : 10.18211/kjhrdq.2014.16.3.009
- [50]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 Based Approach*. NY: The Guilford Press.
- [51]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185-227.
- [52] H. W. Bang. (2019).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chievement Motivation, Academic Emotion Regula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Learning Flow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2), 1213-1239.
DOI : 10.22251/jlcci.2019.19.12.1213
- [53]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 422-445.
- [54]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with readings*. (5th de.).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55] C. E. Yu. & G. P. Cho. (2012). The Effect of Adult Attachment, Career Barriers, and Achievement Motivation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ir Career Decision Levels and Career Aspiratio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2(4), 143-166.
- [56] J. Y. Li., & G. J. Yoon. (2013). The Effects of Ego-Resilience, School Satisfaction and Achievement Motivation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8(3), 113-130.
- [57] H. C. Choi., H. J. Kim., H. T. Chung., K. S. Lee., J. Y. Lee. & M. W. No. (2015). The Impact of Adolescents' Self-Concept on Achievement Motivation - Four-Year College Students around -, *the Journal of Korean Island*, 27(3), 53-71.
- [58] K. M. Jeong. (2006). The Effect of Group Counseling Using Self-Growth Program on Self-esteem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Student Counseling*, 13, 37-48.
- [59] H. G. Baek. (2012). Relationship among Participation Motivation, Self-efficacy, Self-respect & Ceaseless Participation Intention of College Students in Mind Growth Program,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7), 59-67.
DOI : 10.14400/JDPM.2012.10.7.059
- [60] S. H. Bang & D. H. Lee. (2013). The Effects of Transactional Analysis Group Counseling Program on Ego-state,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mong Colleg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4(4), 2641-2660.
DOI : 10.15703/kjc.14.4.201308.2641
- [61] S. J. Kim., I. J. Jeong. & B. Y. Kim. (2019). Effects of the Enneagram Group Counseling Program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esteem and Stress Coping Strateg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10), 347-355.
DOI : 10.15207/JKCS.2019.10.10.347
- [62] S. Y. Kim & J. S. Kim. (2021). A Meta-Analysis on the Effects of Group Counseling Programs on Depressive Symptoms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 Journal of Youth Studies*, 28(3), 309-338.
DOI : 10.21509/KJYS.2021.03.28.3.309
- [63] Y. S. Park. (2020). Qualitative research of Professor's Perception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Psychological and Social Services for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2), 1393-1422.
DOI : 10.22251/jlcci.2020.20.22.1393
- [64] J. R. Jeong., K. J. Yon., J. W. Yang. & J. K. Kim. (2016). The Effects of Gender, Psychological Distresses, and Attitudes and Experiences related to Counseling on the Intent to Seek Counseling: Beyond Previous Use of Counseling,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4(1), 131-150.
DOI : 10.35151/kyci.2016.24.1.007
- [65]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1). A plan to support college students' mental health.

박 동 진(Dong-Jin Park)

[경력]



- 2020년 3월 ~ 현재 : 한영대학교 사회 복지과 조교수
- 2020년 7월 ~ 현재 : 한영대학교 학생 상담혁신센터장
-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 청소년복지
- E-Mail : wookana@hanmail.net

김 송 미(Song-Mi Kim)

[경력]



- 2020년 3월 : 도시사(同志社)대학 사회 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 다문화사회 복지
- E-Mail : matumism0730@gmail.com